

정상인과 신체장애자의 성격특성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 순 화 · 이 명 희

성신여자대학교 가정대학 의류직물학과

Clothing Behavior Related to Selected Personality Traits of the Normal and Disabled Females

Soon Hwa Lee · Myounghee Lee

Sungshin Women's University
(1989. 8.1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clothing behavior of the normal and disabled females, and to find out the difference in clothing behavior of the two groups.

Questionnaires for clothing behavior were chosen from the items which had been used in previous studies, and the items were selected on the basis of Cronbach's Alpha Reliability Coefficient. Clothing behavior was composed of four variables: aesthetics; comfort; modesty; and satisfaction.

For measurement of 3 personality traits (emotional stability, sociability, and superiority), a portion of "Personality Inventory" by Sangro Lee, Changjin Byeon, and Wuigyo Jin was used.

Samples were 286 females in Seoul, of whom 110 were normal high school girls, 86 were normal college women, 41 were disabled high school girls, and 49 were disabled college wome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F-test, and 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the followings:

1. There were meaningful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clothing behavior.

1) Stability had negative relations to aesthetics and modesty and positive relation to satisfaction. In the case of the normal, stability had no relation to comfort, but in the case of the disabled, it had positive relation to comfort.

2) The sociability had positive relations to aesthetics and satisfaction.

3) The superiority had negative relation to modesty, it had positive relation to satisfaction. The superiority of the normal had negative relation to comfort, whereas the superiority of the disabled had positive relation to comfort.

2.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clothing aesthetics between the normal and the disabled.

3. In case of the normal, college women regarded comfort less important than high school girls. In case of the disabled, college women regarded comfort more important than high school girls.

4. In upper class, there was no difference on the clothing comfort between the normal and the disabled. But there was difference on comfort between the normal and the disabled in low class.

I. 서 론

의복은 그 시대의 사회·종교·정치·경제 상황을 반영시키는 동시에 한 개인의 가치관·사회적 역할·신분 및 성격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Ryan¹⁾은 인간이 자신의 의복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의 신체적 조건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격과 의복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것은 성격과 신체 특징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의복이 인간의 행동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중요하지만 특히 청소년기에는 외모와 관련된 인상에 민감하고 또래 집단에 동일시하며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므로 그 영향은 더욱 크게 작용한다.

성격특성과 의복행동의 관련 연구는 대부분 정상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체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정상인과 신체장애자의 의복행동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정상인과 신체장애자의 성격특성과 의복행동에 관한 내용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인 여고생 및 여대생과 신체장애자인 여고생 및 여대생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성격특성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의복행동 변인으로는 심미성, 편안성, 정숙성, 만족도의 4개 변인을 선정하였으며, 성격특성 변인으로는 안정성, 사회성, 우월성의 3개 변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상인과 신체장애자의 성격특성(안정성, 사회성, 우월성)과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정상인과 신체장애자의 의복행동의 차이를 밝히며,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두 집단의 의복행동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복행동

의복행동이란 의복에 대한 태도, 흥미, 관심, 습 선택 및 착용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격, 편안성, 정숙성, 만족도의 네가지 요인을 연구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Mcjimsy²⁾는 미의 기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의복착용의 기본적인 동기 즉 장식의 욕구는 시대에 따라 거의 변함이 없다고 함으로써 장식미 추구의 변성을 말하였다. 장기숙의³⁾ 연구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폭넓게 생각하는 고등학교 학생일수록 멋있는 의복을 호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며, 새로운 반듯 민감한 여고생일수록 아름다운 의복을 추구하는 편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지위를 상승하고자 하는 사람과 통주의적인 가정의 사람들은 의복의 아름다움과 예의를 둘 다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별로 보자 대학 4학년은 1학년보다 심미성을 더 중요시 하는 이었다⁴⁾.

한편 현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편안함이 중요시 되 시기로서⁵⁾ 특히 20C에 들어와서는 여러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기능적인 캐주얼한 의복(casual wear)을 착용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특징때문에 정장(formality)이 감소되고, 다양성, 실용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⁶⁾. Hurlock⁷⁾은 청소년들에게는 편안한 옷나 실용적인 옷 보다는 그들의 동년배에서 유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고생을 대상으로 변기혜⁸⁾의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변인은 편이 이었다. 또한 임현규⁹⁾의 연구에서는 신체장애자들이 복 구매시 의복이 몸에 잘 맞는점을 특히 중요시 하였다.

정숙성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타고난 감각이 아니라득되는 특성이며, 연령, 성별,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다¹⁰⁾. 의복에서의 정숙성은 인간 행동을 규제하는 금

인 행동으로 성적과시, 노출, 성적욕망, 혐오감이나 치심, 아름답거나 화려한 것에 대한 규제할 목적으로 다¹¹⁾. 최혜선¹²⁾은 여고생은 의복의 정숙성을 가장 중시 하며,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정숙성을 더 중요시 한다고 하였다. 박찬부¹³⁾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안정된 심리상태의 여학생들은 위생, 편안위주의 복을 착용하였으나 자기 가정과 가족에 대한 긍지감이 고갈되어 있는 여학생들은 편안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명희¹⁴⁾의 연구에서는 심미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정숙성에 관심이 낮았다.

자기 자신의 의복에 만족하는 정도는 개인의 관심과 직관 또는 의복의 선택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의복의 추도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의복 착용시의 만족 뿐 아니라 가격이나 직물의 특성 등을 포함한다¹⁵⁾. 의복 만족도에서 자신이 의복을 잘 입었다고 느끼면 자연히 행동과 어떠한 상황에도 여유있게 대처하지만 반대 느낄 경우에는 지나치게 소심해져 자신에 대하여 타인 어떻게 생각할가에 문두하게 된다¹⁶⁾. 실증적인 연구¹⁶⁾에서 볼 때 가정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의복 만족도가 높아졌다. 김미영, 이은영¹⁷⁾은 여자 중·고·대생을 대상으로 의복 만족도를 연구한 결과 타인위주의 착용을 하는 경우가 자아위주의 의복착용을 하는 것보다 의복 만족감이 더 높다고 하였으며, 중학생의 2에만 하류층으로 갈수록 의복 불만감이 높아진다고 했다. Feather, Martin, 및 Miller¹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신체장애자 학생들은 의복행동 변인 중 배선, 관성, 안락성, 내구성등에 관하여 바람직한 태도를 갖추지 못해 정상인 학생들보다 자신의 의복 만족도가 뒤떨어진다고 하였다.

2. 성격특성과 의복

!격은 다양한 특질로 분류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안정성, 사회성, 우월성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정성은 정서적 안정성의 정도를 나타내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정신적 균형의 유지, 감정의 ! 및 평온, 확고한 자신과 낙관을 의미한다¹⁹⁾. n¹⁾은 안정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안전감을 소유하며 따라서 의복이 착용자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고, 옷을 잘 입었다고 느낄때 활동적이며 안전감이 있었고, 잘못 입었다고 느낄때

수줍어하고 불안해한다고 하였다. 이은미²⁰⁾의 연구에서는 안정성이 낮은 사람은 불안정한 자신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복에 신경을 쓰며, 친구들과 의복에 동조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고 하였고, 심은선²¹⁾의 연구에서는 불안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합리화, 억압, 투사, 공격등의 방어기제로 의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박광희²²⁾의 연구에서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여고생일수록 의복의 정숙성에 대하여 관심이 높았으나 Darden²³⁾의 연구에서는 안정성은 의복의 정숙성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최혜선¹²⁾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안전감이 높을수록 의복 흥미성이 높고 예의성과 심미성을 중요시 하였다.

사회성은 사회활동을 즐기며 타인과 협동적이며 충동이 적은 특성을 뜻한다¹⁹⁾. 청소년기에는 특히 외모 및 의복이 사회성이나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게 되는데 Ryan¹⁾의 연구에서 여대생들은 그들의 옷차림이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Conner²⁴⁾의 연구에서 사회적 인상을 형성하는데는 착용자의 외모보다 의복의 영향이 더크다고 하였다. 박광희²²⁾의 연구에서는 사회성은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므로 사회성이 높은 여고생일수록 자신의 의복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우월성은 우월감·열등감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우월감이 높을때는 든든한 자신감을 가지며 자기과시적 행동이 강하게 된다¹⁹⁾. 일찌기 Morton²⁵⁾은 의복이 우리에게 자신감, 자존심, 유쾌함과 자유를 주도록 도와주고, 자의식과 부끄러움과 민감함을 지니게 한다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기의 자신감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¹⁾. Rosenfeld와 Plax²⁶⁾의 연구에서 의복의 실용성에 관심이 높은 여대생은 자신있고 외향적이며, 우월감을 지니고, 의복과시성이 낮은 여대생은 소심하며 열등감을 가졌다고 하였다. 정하선²⁷⁾의 연구에서는 자신감이나 우월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의복선택에 있어서 경제성을 중요시 하고, 정숙성이나 동조성에 대한 태도는 낮은 편이었다.

III. 가설 및 용어정의

1. 가설

<가설 1> 정상인과 신체장애자의 의복행동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2> 정상인 및 신체장애자의 성격특성과 의복 행동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가설 3> 의복행동은 정상인 및 신체장애자, 여고생 및 여대생의 집단에 따라 동시에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가설 4> 의복행동은 정상인 및 신체장애자 집단,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동시에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2. 용어정의

1) 의복행동 : 의복에 대한 선택, 착용, 습관 등과 관련된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한다.

① 심미성 :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② 편안성 : 옷을 입었을 때 온도나 질감에 대한 반응 및 느낀함이 끼끼는 정도 등의 신체적 반응을 중요시 하며 가능한한 편안한 옷을 입으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정숙성 : 신체를 과도로 노출한 옷, 비치는 옷 등을 싫어하며 예의를 중요시 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④ 만족도 : 소유하고 있는 의복의 종류, 용도, 가격 및 어울리게 입는 방법에 대해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2) 성격특성

① 안정성 : 정서적 안정성의 정도를 나타내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정신적 균형의 유지, 감정의 안정 및 평온, 조용한 것 등을 의미하며, 반대로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경우는 정신적 불안, 심리적 긴장, 신경과민, 걱정근심 등이 있음을 뜻한다.

② 사회성 : 사회활동, 집단생활을 즐기며 친구가 많고 협동적이며 인정이 많고 남과 의견이 잘 맞으며 충동이 적은 특성으로 반대로 수줍어하고 고독을 일삼는 비사회성과 대조된다.

③ 우월성 : 우월감-열등감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우월감이 높을 때는 든든한 자신감을 가지며 자기과시적 행동이 강한 것을 뜻한다.

3) 신체장애자 : 신체적 또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상·하지 및 체간부의 마비, 관절의 기능장애, 선천적인 각종 기형이 있거나 또는 사지중 그 일부가 절단되어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를 말한다.

IV.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방법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4가지 의복행동 변인과 3가지 성격특성 변인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1) 의복행동

의복행동 변인은 의복의 심미성, 편안성, 정숙성, 만족도의 4측면을 포함하였다. 의복행동 조사 문항은 선례 연구^{14~16)}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초로하여 사용하였다. 심미성 11문항, 편안성 11문항, 정숙성 14문항, 만족도 12문항으로 총 48문항을 조사하였는데, Cronbach의 신뢰도 검사에 의해 신뢰도를 떨어 뜨리는 문항을 정숙성에서 2문항, 만족도에서 1문항을 제외하고 45문항의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변인에 따른 문항은 Likert형의 5단계 총합 평정법으로 조사하여 1~5점을 주었으며 변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을 중요시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성격특성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상로, 변창진, 진위의 표준화된 성격진단검사중에서 안정성, 사회성, 우월성을 각 30문항씩 선택하여 총 9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진위형으로 답하게 되어있으며 점수 범위는 0~3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성, 사회성, 우월성이 높은 것을 뜻한다.

3)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는 주관적 평가 방식에 의해 조사하였으며 '상의상', '상의하', '중의상', '중의중', '중의하', '하의상', '하의하'로 7유목으로 분류하였다. 자료분석시에는 '중의상' 이상을 상집단, '중의중'을 중집단, '중의하'이하를 하집단으로 분류하였다.

2. 표집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정상인 및 신체장애자에 해당하는 여고생과 여대생이다. 신체장애자는 일반 여자고등학교와 특수교육 기관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중인 여고생과 대학교에 재학중인 여대생으로 선정하였다.

신체장애 여대생은 장애자 대학연합 씨름, 장애자 수모임 등에 질문지를 배부하여 표집하였다. 장애자 장애 정도는 목발이나 브레이스를 착용한 정도이며,

로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를 지닌 사람이었다.

조사기간은 1989년 4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였으며, 총 320부를 배부하여 기입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하고 286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집 대상자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3. 자료분석

표집된 자료는 SPSS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자료분석은 평균, 표준편차,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고, t검증, 일원변량분석,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V. 결과 및 논의

1. 정상인과 신체장애자의 의복행동의 차이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상인과 신체장애자의 의복행동의 차이를 t검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집단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의복행동 변인은 심미성이며 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의복의 심미성은 장애자가 정상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신체장애자는 자신의 불완전한 외모를 보완하기 위하여 외모에 관심을 두므로 정상인보다 의복의 심미성에

표 1. 표집 대상의 분포 (%)

집단	정 상 인	장 애 자	계
여 고 생	110(38.5)	41(14.3)	151(52.3)
여 대 생	86(30.1)	49(17.1)	135(47.2)
계	196(68.6)	90(31.4)	286(100.0)

표 2. 정상인과 신체장애자의 의복행동의 차이

의복행동	집단		정 상 인 (N=196)		장 애 자 (N=90)		t
	M.	S.D	M	S.D	M	S.D	
심 미 성	34.62	4.94	37.13	6.48	-3.27**		
편 안 성	36.29	5.19	37.06	5.51	-1.11		
정 숙 성	40.46	6.59	39.52	5.53	1.26		
만 족 도	34.41	4.59	34.21	5.48	0.30		

**P<0.01

표 3. 정상인 및 신체장애자의 성격특성과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

의복행동	성격특성	안정성	사회성	우월성
		전 체	-0.29**	0.10*
심 미 성	정상인	-0.25**	0.08	0.02
	장애자	-0.36**	0.15	-0.23*
편 안 성	전 체	0.07	0.10	-0.06
	정상인	-0.04	0.06	-0.20**
정 숙 성	장애자	0.29**	0.16	0.24*
	전 체	-0.15**	0.02	-0.11*
속 성	정상인	-0.15*	0.02	-0.15*
	장애자	-0.15	0.01	-0.05
만 족 도	전 체	0.30**	0.21**	0.30**
	정상인	0.28**	0.23**	0.35**
도	장애자	0.33**	0.19*	0.21*

*P<0.05 **P<0.01

신경을 더 많이 쓴다고 해석된다. 그의 편안성, 정숙성, 만족도는 정상인과 장애자의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부정되었다.

2. 정상인 및 신체장애자의 성격특성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성격특성 변인과 의복행동 변인의 관계를 적률상관계수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전체적으로 안정성은 심미성 및 정숙성과 부적 상관, 만족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심미성 및 정숙성은 중요시 하지 않으며 의복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장애자는 안정성과 편안성이 정적 상관을 보여 안정성이 높을수록 편안성을 더 중요시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안전감이 높을수록 심미성을 중요시한다는 최혜선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즉 사회적 안전감과 정서적 안정성이 의복행동과의 관계가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안정성이 높을수록 정숙성이 낮은 것은 박광희의 연구 결과와 어긋났으나 Darden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또한 안정성이 높은 사람이 심미성과 정숙성을 중요시하지 않았던 점은 불안감이 높은 사

람이 의복을 방어기제로 사용한다는 심은신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회성은 심미성 및 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여 사회성이 높을수록 심미성을 중요시 하며 의복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안전감이 높을수록 심미성을 중요시 한다는 최혜선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것은 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의복의 아름다움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여러 사람을 자주 대하게 되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것이므로 의복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월성은 정숙성과 부적 상관, 만족도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자신감이 있고, 자기과시적인 사람은 의복 착용시 보수적이고 예의적인 면은 중요시하지 않으며 의복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우월성이 높을수록 정숙성이 낮았던 것은 자신감이 높을수록 정숙성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정하신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집단을 구분해서 볼 때 정상인은 우월성과 편안성이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장애자는 우월성과 심미성이 부적 상관, 우월성과 편안성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우월

성이 높은 장애자는 심미성을 중요시하지 않으나 편안성은 중요시 하였다.

여기서 세가지 성격 특성이 높을수록 의복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대인관계, 사회관계가 원만하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부정되었다.

<표 3>에서 안정성과 편안성, 우월성과 심미성, 우월성과 편안성의 상관관계가 정상인과 장애자의 경우 서로 다른 관계를 지닐 가능성을 보였으므로 이 관계를 좀 더 확실히 파악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성격특성 점수에 대한 누적백분율을 산출하여 25% 이하의 하위집단, 75% 이상은 상위집단, 가운데는 중간집단으로 구분하여 전체를 상, 중, 하 집단으로 나누었다.

성격과 집단을 독립변인, 의복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평균치를 조사한 결과는 <표 4>, <표 5>와 같으며 <그림 1>, <그림 2>는 평균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표 4-1>에서 보면 의복 편안성은 정상인 및 장애자, 안정성 수준에 따른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표 4-2>의 평균치와 <그림 1>의 그래프에서 보면 정상

표 4-1. 편안성에 관한 정상인 및 장애자, 안정성에 따른 이원변량 분석

변 량 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정상인 및 장애자(A)	32.306	1	32.306	1.211
안정성(B)	30.059	2	15.030	0.564
A × B	449.093	2	224.547	8.419**
집단내(오차)	7467.902	280	26.671	
전 체	7983.126	285	28.011	

**P<0.01

표 4-2. 편안성에 관한 정상인 및 장애자, 안정성에 따른 평균치 (N)

안정성(B) 집단(A)	하(81)	중(127)	상(78)	전체(286)
정 상 인	36.26	36.94	35.18	36.29
장 애 자	35.48	35.79	40.11	37.06
전 체	36.04	36.59	36.95	3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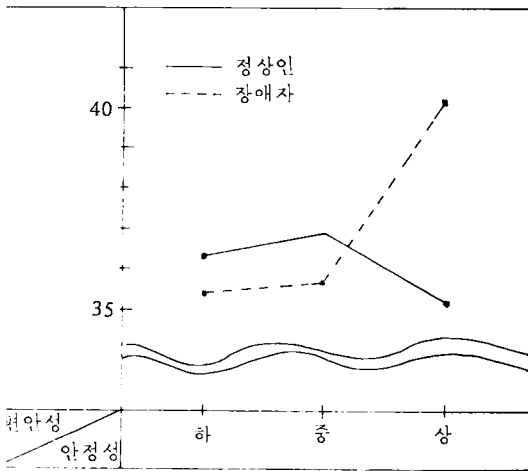
표 5-1. 편안성에 관한 정상인 및 장애자, 우월성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변 량 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정상인 및 장애자(A)	37.582	1	37.582	1.391
우월성(B)	21.107	2	10.553	0.390
A × B	358.664	2	179.332	6.636**
집단내(오차)	7567.284	280	27.026	
전 체	7983.126	285	28.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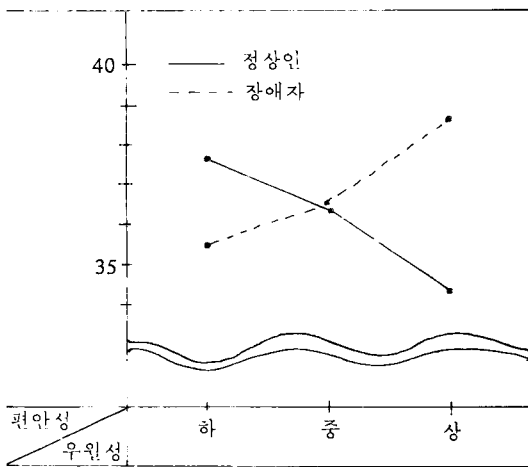
**P<0.01

표 5-2. 편안성에 관한 정상인 및 장애자, 우월성에 따른 평균치 (N)

우월성(B) 집단(A)	하(72)	중(137)	상(77)	전체(286)
정 상 인	37.68	36.50	34.61	36.29
장 애 자	35.50	36.91	38.79	37.06
전 체	36.83	36.60	36.13	36.53



림 1. 편안성에 관한 정상인 및 장애자, '안정성 수준에 따른 집단의 상호작용형태



림 2. 편안성에 관한 정상인 및 장애자, 우월성 수준에 따른 집단의 상호작용 형태

인 경우 안정성 수준에 관계없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낸 반면, 장애자인 경우는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의의 편안성을 매우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즉 안정성이 중·하인 경우 의복편안성에 대한 집단의 태도에는 차이가 없는 반면 안정성이 높은 경우 정상인과 장애자의 편안성 수준은 크게 차이가 났다. 이것은 장애자는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외적인 면 보다는 실질적인 면을 더 중요시하여 의복 편안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복 심미

성은 정상인 및 장애자, 우월성 수준에 따른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다.

의복 편안성은 <표 5-1>에서 보면 정상인 및 장애자, 우월성 수준에 따른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표 5-2>의 평균치와 <그림 2>의 그래프에서 보면 정상인의 경우 우월성이 낮을수록 편안성을 중요시 하였으나 장애자의 경우는 우월성이 높을수록 편안성을 중요시 함으로써 서로 상반되는 특징을 나타냈다. 즉 자신감이 강한 장애자는 신체적 결함이 있으므로 외적인 아름다움의 표현에는 관심이 낮고 실질적인 면에 관심을 두므로 편안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월성이 높을수록 정상인은 편안성을 중요시 하지 않고 장애자는 편안성을 중요시 한다는 것은 두 집단의 성격과 의복행동의 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뜻한다.

3. 의복행동에 대한 정상인 및 장애자, 여고생 및 여대생 집단에 따른 상호작용의 효과

의복행동에 대하여 정상인 및 장애자, 여고생 및 여대생 집단에 따른 상호작용의 효과를 이원변량분석으로 조사한 결과 의복의 편안성에 대해서만 상호작용의 효과가 있었다.

<표 6-1>과 같이 의복 편안성은 두 변인에 대해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상호작용을 하였다. 편안성에 관한 정상인 및 장애자, 여고생 및 여대생 집단의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표 6-2>와 같고 상호작용의 형태는 <그림 3>과 같다.

장애자는 여대생이 여고생보다 의복의 편안성을 더 중요시 하였으나 정상인은 여대생의 경우 편안성을 중요시

표 6-1. 편안성에 관한 정상인 및 장애자, 여고생 및 여대생집단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변 량 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정상인 및 장애자(A)	45.507	1	45.507	1.68
여고생 및 여대생(B)	61.211	1	61.211	2.26
A × B	260.572	1	260.572	9.64**
집단내(오차)	7625.271	282	27.040	
전 체	7983.126	285	28.011	

**P<0.01

표 6-2. 편안성에 관한 정상인 및 장애인, 여고생 및 여대생 집단의 평균치

집단(A) \ 집단(B)	정 상 인	장 애 자	전 체
여 고 생	37.27	36.02	36.93
여 대 생	35.03	37.92	36.08
전 체	36.29	37.06	3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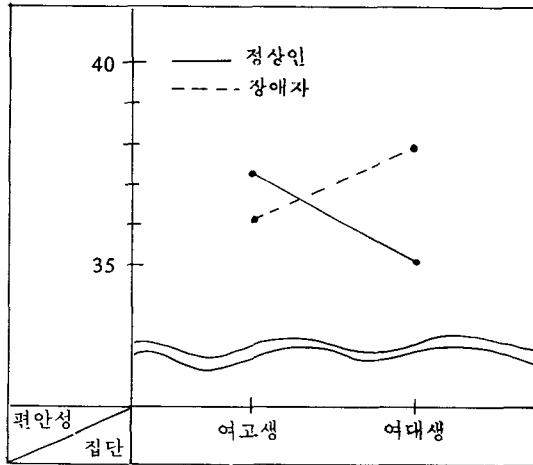


그림 3. 편안성에 관한 정상인 및 장애인, 여고생 및 여대생 집단의 상호작용 형태

하는 태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자는 대학생이 되고 연령이 높아짐으로 성숙한 면을 보여 좀더 실질적인 면을 중요시 하지만, 정상인의 경우는 대학생이 되면 고등학생보다 의복을 다양하게 입을 수 있어 편안성 보다는 의복의 개성 등과 같은 다른 측면에 더 높은 가치를 둠으로 편안성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부정되었다.

5. 의복행동에 대한 정상인 및 장애인 집단,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상호작용의 효과

의복행동에 대하여 정상인 및 장애인,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상호작용의 효과를 이원변량분석으로 조사한 결과 의복의 편안성에 대해서만이 상호작용의 효과가 있었다. <표 7-1>과 같이 의복 편안성은 두 변인에 대해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상호작용을 하였다. 편안성에 관

표 7-1. 편안성에 관한 정상인 및 장애인 집단,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변 량 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정상인 및 장애인(A)	27.502	1	27.502	1.01
사회경제적 수준(B)	147.754	2	73.877	2.72
A × B	186.754	2	93.377	3.44**
집단내(오차)	7612.546	280	27.188	
전 체	7983.126	285	28.011	

*P<0.01

표 7-2. 편안성에 관한 정상인 및 장애인 집단,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평균치

경제수준(B) \ 집단(A)	하(31)	중(154)	상(101)	전체
정 상 인	35.47	36.78	35.75	36.29
장 애 자	40.64	37.13	35.27	37.06
전 체	37.81	36.88	35.60	3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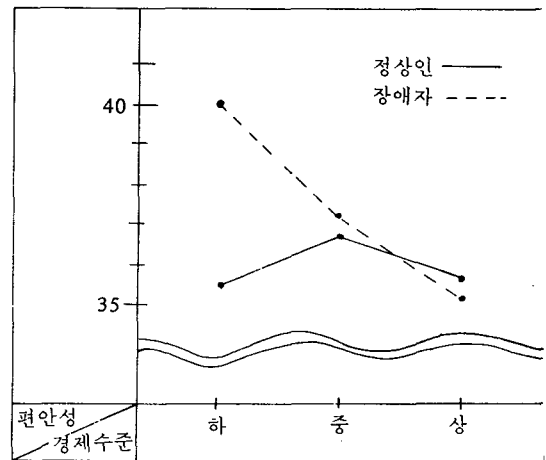


그림 4. 편안성에 관한 정상인 및 장애인, 사회경제적 수준별 집단의 상호작용 형태

한 정상인 및 장애인 집단,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평균치를 조사한 결과는 <표 7-2>와 같으며 <그림 4>는 상호작용의 형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표 7-1>과 <그림 4>에서 보면 정상인인 경우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비교적 편안성이 고른 분포를 나타낸 반면, 장애인 경우, 경제적 수준이 중·하로 내려갈수록 편안성에 관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제적 수준이 상층인 경우 정상인과 장애자의 편안성 선호도는 차이가 없는 반면, 경제적 수준이 하층인 경우 정상인과 장애자의 편안성에 관한 선호도는 크게 차이가 났다. 즉 장애자이면서 경제적으로 하층인 집단에서 특히 편안성을 더 중요시하였다.

이 결과 <가설 4>는 부분적으로 부정되었다.

VI. 결 론

정상인과 신체장애자의 성격특성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성을 고찰하고, 두 집단의 의복행동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안정성은 전체적으로 의복의 심미성 및 정숙성과 적 상관이 있었고, 안정성과 만족도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장애자는 안정성과 편안성이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정상인은 유의적인 상관이 없었다.
 2. 사회성은 전체적으로 심미성 및 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3. 우월성은 전체적으로 정숙성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우월성과 만족도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정상인은 우월성과 편안성 및 정숙성이 부적 상관이 있었다. 장애자는 우월성과 심미성은 부적 상관이, 우월성과 편안성 정적 상관이 있었다.
 4. 정상인과 신체장애자에 따라 차이를 보인 의복행동은 심미성이었고, 장애자가 정상인보다 심미성이 높다.
 5. 의복의 편안성은 정상인 및 장애자, 여고생 및 여생 집단에 의해 유의적인 상호작용을 하였다. 정상인 경우 여고생 보다 여대생이 편안성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낮았으나, 장애인 경우 여고생 보다 여대생이 편안성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높았다.
 6. 의복의 편안성은 정상인 및 장애자, 사회경제적 세계에 의해 유의적인 상호작용을 하였다. 중류와 상류층은 정상인과 장애자의 편안성 선호도는 차이가 없었다. 하류층인 경우 정상인과 장애자의 편안성에 관한 선호도는 크게 차이가 났다. 즉 장애자이면서 경제적으로 하류층인 집단에서 편안성을 매우 중요시 하였다.
- 이상의 결과로 종합해 볼 때 정상인과 신체장애자의

성격특성과 의복행동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집단에서 의복 편안성 부분에서 성격과의 관계가 서로 달리 나타났는데 정상인은 우월성이 높을수록 편안성에 관심이 낮았으나 장애자는 우월성이 높을수록 편안성을 중요시하였다. 특히 편안성에서는 계층 및 집단 소속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결과 흥미있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좀더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심리적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주관적 평가법에 의해 측정하였으나 이것을 가장의 직업, 학력, 소득 등의 지표를 사용한 객관적 방법으로 조사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또한 장애자를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달리 구분해서 조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참 고 문 헌

- 1)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88, 107, 291-292, (1966)
- 2) McJimsey, H.T.,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2nd ed. T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5, (1973)
- 3) 장기숙,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창의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4) 이은주, 가정의 가치지향성과 개인의 의복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5) Horn, M.J., Gurel, L.M.,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256, (1981)
- 6) Anspach, K., *The Why of Fashion*, Ames Iowa: T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311-313, (1967)
- 7) Hurlock, E.B., *The Psychology of Dress: An Analysis of Fashion and Its Motives*, New York: McGraw Hill Book Co., 181-185, (1929)
- 8) 변기혜,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9) 임현규, 지체부자유자의 의복행동과 지각향성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10)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30, (1984)
- 11) Flugel, J.C., *The Psychology of Clothe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Inc., 54, (1971)
- 12) 최혜선, 의복행동과 사회적 안전감-불안감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13) 박찬부, 여대생의 의복형태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4, 182-188, (1978)

- 14) 이명희, 예의·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 15) 유재미, 학교 및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여자중학생의 의복행동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16) 김미영,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자율화와 외모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17) 김미영, 이은영, 연령과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불만감과 관련 변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7, no. 2, 31~34, (1983)
- 18) Feather, B.L., Martin, B.B., and Miller, W.R., Attitudes toward Clothing and Self-Concept of Physically Handicapped and Able-bodied University Men and Woma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 no. 4, 234-240, (1979)
- 19) 이상로, 변창진, 진위교, 표준화 성격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5, (1969)
- 20) 이은미, 여자 중학생의 성격특성 및 또래집단 수용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21) 심은선, 불안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25, (1987)
- 22) 박광희, 여고생들의 의복행동과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1, (1983)
- 23) Darden, L.A., Personality Correlates of Clothing Interest for a Group to Non-Incarcerated and Incarcerated Women Ages 18 to 30,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 of North Carolina, (1975), 강혜원, 전게서, 278에서 재인용
- 24) Conner, B.H., Peters, K., and Nagasawa, R.H., Person and Costume: Effects on the Formation of First Impression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 no. 1, 32-41, (1975)
- 25) Morton, M.Grace, Psychology of Dress, *Journal of Home Economics*, 18, no. 10. 584-586, (1926)
- 26) Rosenfeld, L.B., Plax, T.G., Clothing as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7, 24-31, (1977), 강혜원, 전게서, 279에서 재인용
- 27) 정하신, 여고생의 성격특성과 의복선택 요인과의 상관관계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23, no. 4, 2-6(1985)